

김장값, 작년보다 비싸고 평년보다 저렴

aT “20포기 기준 20만6천747원…전년비 3.5% ↑”

광주 배추 1포기 2주전 보다 13% 낮은 4천330원

김장 주재료인 배추 출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김장값이 작년보다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지만 평년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남 기준 주요 김장재료 14

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0만6천747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년 동기(19만9천812원)보다 3.5% 높았으며 2019년부터 작년

까지 김장 비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년비용보다는 6.2% 낮은 수준이다.

이는 김장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추가격이 최근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역 전통시장에서 품목별로 살펴봐도 가격 하락세는 뚜렷하다.

지난 18일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 정보 기준 양동시장에서 배추 1포기가

4천330원(상품 기준)에 판매됐다. 2주전(5천원)과 비교하면 13.4%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무(1개, 3천원→2천830원) 5.7%, 양파(1kg, 2천430원→2천160원) 11.1%, 새우젓(1kg, 1만1천600원→1만600원) 등 김장 속 재료의 가격도 2주 전보다 낮아짐에 따라 전체 김장비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김장재료 가격 임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높

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무 가격은 88.7%, 배 20.5%, 배추 83% 등 순으로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앞서 정부는 배추 2만4천, 무 9천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공급하고 비축 물량 또한 시기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도록 할 계

획이어서 앞으로 체감하는 김장비용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aT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김장재료 공급과 수급 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 지역의 농수산물 가격정보 기준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라 소비자들에게 할인까지 받는다면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김장 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제56돌 광주은행,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

지속가능 100년 은행 발전 방향 논의



사진 왼쪽부터 김한 제12대 은행장, 송기진 제10대 은행장, 임종대 제8대 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정태석 제9대 은행장, 김장학 제11대 은행장, 송종욱 제13대 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19일 서울 GS스퀘어에서 창립 56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송종욱(제13대)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의 지난 56년을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역대 광주은행장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장기적 관

점에서 광주은행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지역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

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역대 은

행장님들께서 쌓아 오신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광주 인공지능·실감콘텐츠 경쟁력 높인다

GICON, 21-22일 ‘실감기술행사’…스튜디오 체험·미디어 공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GICON)은 19일 “2024 GICON WEEK 기간 중 인공지능과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체험행사인 ‘광주실감기술행사’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브랜드 행사인 2024 GICON WEEK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실감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지속가능

콘텐츠 제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1일차인 21일에는 ‘GICON, AI로 시민과 함께하는 창작’을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며 카메라 촬영·배우체험, 조명·음향체험 등 스튜디오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일차인 22일에는 ‘GICON, 인공지능 그리고 비주얼 콘텐츠’를 주제로 3개 세션의 발표와 기술 시연이 진행된다. 또한 아시아 문화기술 R&D 성과 발표

회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중심으로 한 광주 영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도 열려 지역 콘텐츠 제작 여건과 기업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사업의 문화기술 성과공유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업 3개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실감콘텐츠 분야에 있어 지역 문화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태호기자

보해양조, 블리자드와 ‘악마의 영혼’ 출시

은은한 25도 증류주…게임 내 포션 오마주

청양고추로 완성한 ‘스파이스’한 맛

보해양조가 글로벌 게임 기업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증류주 ‘악마의 영혼’(DEMON'S SPIRIT)을 20일 출시한다.

19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블리자드의 대표 인기 게임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헤리티지를 담아 선보인 다.

디아블로는 디아블로이 출시된 지 28년이 지난 현재도 강력한 영향력과 깊이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악마의 영혼’은 디아블로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II: 레저렉션의 강렬한 메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게임 세계관을 술에 담아내는 이번 협업은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브랜드 확장의 일환이다. 보해는 주류와 게임 결합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경험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게임 속 플레이어가 돼 악마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 속 요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붉은색 술은 디아블로의 배경인 성역의 지옥 물결을 연상시키며 사슬 모양의 뚜껑은 봉인을 상징해 시각적 매력



을 더한다.

게임 내 포션(물약)을 오마주한 후면 라벨과 함께 술을 마실수록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디아블로의 형상은 특별한 소장 가치를 더한다.

제품의 맛 역시 디아블로의 강렬함을 담아냈다. 청양고추를 침출해 구현한 매력적인 ‘스파이스’한 맛이와인 증류주의 부드러운 향과 어우러져 은은한 매콤함과 함께 깔끔한 마무리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악마의 영혼’은 25도, 500ml 용량으로 전국 CU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박은성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